

‘U비무환’ 메르스 차단에 성패 달렸다

〈유니버시아드〉

광주시·조직위, 방역본부 운영 24시간 비상체제 돌입

20일부터 2만여명 입국...중동선수 특별관리·발열 체크

광주시와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가 대회 개최를 불과 29일 앞두고 흥행 악재로 떠오른 중동발 ‘메르스(MERS)’를 완전 봉쇄하기 위해 24시간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3·5·21면〉

전국적으로 일선 학교 휴교령, 수학여행, 축제 등 사람이 모이는 대형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자칫 대회 흥행은 물론 최악의 경우 개최 여부마저 불투명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마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3일 광주시와 광주 U대회 조직위 등에 따르면 현재 광주와 전남에 주소지를 둔 메르스 의심환자는 4명씩 모두 8명이다. 광주에서는 광주 모 병원에 2명이 격리돼 있으며 2명은 자가격리된 상태다. 전남에 주소지를 둔 유사증세 환자는 서울과 경기도에 1명씩 수도권 병원에 2명이 격리돼 있으며, 나머지 2명은 자가격리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고 24시간 비상근무 중이다.

특히 광주시는 당장 오는 20일부터 메르스 지원지로 알려진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 8개국 490여명을 포함한 전세계에서 2만여명의 선수단 등이 광주로 속속 들어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일 운장현 광주시장 주재로 관계기관 비상대책회의를 갖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시는 또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연계해 입국과 동시에 중동 선수단을 특별 관리하고, 모든 참가 선수에 대해 매일 2차례씩 발열 체크 등 수시 건강 시스템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선수촌 입구 등 여러 곳에 발열체크 감지기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메르스 등 전염성 질환 의심환자는 국가 지정 병원에 곧바로 격리 조치할 방침이다.

시와 조직위는 사스나 신종플루 등이 한 때 전 세계를 뒤흔들었을 당시 개최된 대

구 U대회 등이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감한 사례가 있는데다, 국제대학스포츠포럼(FISU)도 이번 메르스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대회 개최 및 흥행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낙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메르스 격리자만 1000명을 넘어선다 해 언론 등에서도 한국의 메르스 확산 사태를 이례적으로 다루고 있어 외국 선수단의 대규모 참가 취소와 국내 흥행 저조 등이 우려된다.

특히 FISU가 광주 U대회 조직위의 계약서에 전제이나 천재지변, 개최국 보잉아웃 등이 있거나, FISU에서 대회를 개최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대회를 취소 또는 연기할 수 있다고 명시해 이번 메르스 사태가 확산한다면 대회 연기 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광주 U대회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엔트리 마감일 오늘이지만, 통상 모든 국제대회에서 엔트리를 개막 1~2주 전까지 받고 있는 만큼 해외선수단 참가 규모는 시간을 더 두고 지켜봐야 한다”면서 “특히 대형 국제 종합대회의 경우 역사적으로 단 한차례도 취소 또는 연기된 사례가 없는 만큼 광주 U대회도 일정대로 치러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U대회 성공개최 한마당 음악회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개최 성공 기원 시민 한마당 음악회’가 3일 오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5·18 민주광장에서 열렸다. 광장을 메운 시민들이 화려한 공연을 즐기며 환호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메르스 격리자 1364명...하룻새 573명 늘어

사망자 2명·확진 판정 30명

전국 544개 학교 휴업

광주·전남 8명 격리치료

민관 합동 컨트롤 타워 운영

보건복지부는 3일 오후 5시 현재 전국적으로 메르스 격리 대상자 전날보다 573명 늘어난 1364명이라고 발표했다. 자택 격리자가 1261명, 기관 격리자가 103명이다. 격리대상이었다가 격리 해제된 52명은 일상으로 돌아갔다. 〈관련기사 2·6면〉 이날 현재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는 2명, 확진 환자는 30명(사망 2명 포함)이다. 확

진 환자 28명은 국가 지정 격리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방역 당국은 감염 의심자 398명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했고 이 중 3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99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전국적으로 유치원 196곳, 초등학교 273곳, 중학교 55곳, 고등학교 7곳, 특수학교 9곳, 대학교 4곳 등 544개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39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메르스 종합대응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운영키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메르스 대응 민관합동 긴급점검회의를 열어 종합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환자 수가 크게 늘어날 때를 대비해 ‘메르스 전용 병원’을 지정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학교장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상황에 따라 교육·보건당국과 협의해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휴업을 결정하게 된다.

국방부는 메르스의 군 유입 차단을 위해 감염 의심 입대자는 즉시 격리해 귀가시키고 감염 의심 예비군은 훈련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상대책을 마련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남뉴스

광주, 아파트 청약 하려면 3개월 이상 살아야

市, 외지 투기세력 막기

거주기간 제한 규칙 고시

광주시가 아파트 분양시장의 과열 양상을 견제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광주시는 3일 “외지 투기세력의 유입을 막고 시민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거주기간 제한 규칙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광주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다만 광주전남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등 직장 이동 등에 따라 이주할 경우는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적용기간은 오는 6월부터 별도로 해제할 때까지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아파트 청약이 미달할 때는 모두에게 기회를 주지만, 최근 광주지역의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고려할 때 당분간 외지인의 청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지역민은 물론 광주공인중개사협회조차도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 현상을 지적하며 거주 제한을 요구해 왔다.

더욱이 올 들어 최근(2~5월) 청약 경쟁률은 평균 70대 1까지 치솟았으며, 북구 용봉동의 한 아파트는 경쟁률이 115대 1에 이르기까지 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신대학교
광신대학교 2015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6월 8일(월)~19일(금)
문의: (062) 605-1115

Adelium 선운지구 지역주택조합
한국 아델리움

6월 5일 GRAND OPEN

“복합환승센터”, “초역세권” 투자프리미엄
“황룡강”, “어등산” 에코프리미엄
“초대형 친수공원” 생활프리미엄

총 598세대
64㎡ / 79㎡

문의전화 062-945-3600

사업주세 [가정] 선운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 사업자 [주] 안국건설(주) | 자금관리 [주] 국제자산신탁

조합원 모집

중도금
무이자

700
만원대
(3.3㎡)

리버뷰
조망

주택총보관 오시는길

총 598세대
64㎡ / 79㎡

062-945-3600